2001 군수품 품질평가회 개최

21세기 품질보증 발전방향의 새로운 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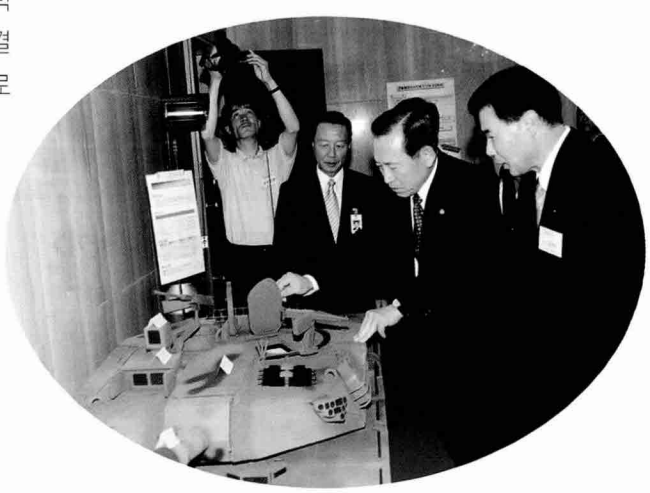
국방품질관리소는 창설 20주년을 맞아 7월 11일 김동신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육·해·공군 및 방산·군수업체 대표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군수품 품질보증 발전방향을 주제로 「'01년 군수품 품질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장관은 치사를 통해 "오늘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창의력이 富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民軍기술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전쟁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첨단무기 확보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미래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군은 첨단 정보화 기술군으로 도약해야 하며, 이를 위해 21세기 신국방건설의 기수인 군과 관련기관은 물론 군수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완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원형 국방품질관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수품 품질은 관련기관간 공동의 노력 없이는 획득될 수 없다"고 말하고, "오늘 품평회가 군수품 품질향상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품평회는 국방품질관리소 업무소개, 군수품 품질평가 보고,각군과 획득관련기관의 품질향상을 위한 의견 발표와 함께 품질개선,성능개량 등의 주요 사례를 전시한 전시품 관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국내 모든 군수품의 품질보증과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품질관리소는 지난 20년간 수행해 온 군수품 품질보증활동을 종합적으로 결산, 분석하고, 수요군 만족 목표의 품질보증활동, Networking을 이용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품질보증 기법 및 위험도관리(Integrated Risk Management)발전,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발전 등 국방품질보증 발전방향을 구체적



으로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날 기관별 발표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연구개발의 정보화", 육·해·공군 및 방위산업진흥회는 "절차 및 제도 개선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으며, 이어 진행된 전시관 관람에서는 국방품질관리소가 수행한 주요 업무에 대해 품질보증관, 생산기술관, 기술지원관으로 구분하여 전시품과 전시내용을 영상물로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2002~2006 국방중기계획 발표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의 기반 구축

국방부는 내년부터 향후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청사진이 되는 「'02~'06 국방중기계획」을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의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수립하였다고 6월 28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중기계획은 '02년도 예산편성의 기준 문서로서,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02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대상 기간중 국방재원은 국가경제 전망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부재정 예상 증가율 수준인 6%를 적용, 총 91조 9,469억원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국방중기계획 첫해인 2002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올해 대비 7.6% 증가한 16조 5629억원으로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중 전력 투자비는 9.9% 증액된 5조 7324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6.5% 증액된 10조 8305억원이다.

■ 전력투자비 분야

'02~'06 기간 동안의 전력투자비분야 중기계획은 "현존 전력 극대화 및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핵심전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첨단 정보 과학전 대비 핵심전력 증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필수전력의 선별적 현대화와 함께, 첨단무기체계 개발능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집중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

분야별 전력투자사업 계획으로 **C4(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체계전력**은 현재 진행중인 SPIDER(육군), KNTDS(해군), MCRC(공군) 등의 계속사업과 해·공군 전술C4I, 통신중계용 전술차량 등의 신규사업을, **정보 및 전자전 전력**은 무인정찰기, 전자광학영상장비, 야간투시경 등 계속 사업과 조기경보통제기, 함정용 전자전 체계 등 신규사업을, **기동 및 타격전력**은 155밀리 신형 자주포, K-1 전차성능개량, 공격헬기(AH-X)등 계속 사업과 테이프형 폭약, 전방관측적외선장비 등 신규사업을, **해상 및 수중전력**은 7,000톤급 구축함(KDX-Ⅲ), 한국형 구축함(KDX-Ⅱ), 차기잠수함 등 계속 사업과 해상초계기 2차, 고속상륙정, 소해함 3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중 및 방공전력은 차기전투기(F-X), KF-16 전투기, 기본훈련기, 차기유도무기(SAM-X), 천마, 비호 등 계속 사업과 KTX-Ⅱ양산, 대형수송기, 휴대용 대공유도탄 등 신규사업을, **연구개발분야**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군전술종합 통신체계, 차기전차 등 체계개발 사업과 기초연구, 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을 반영하였다.

■ 경상운영비 분야

'02~'06 기간중 경상운영비 분야는 현존전투력 유지 관리비의 현실화, 국방정보화 과학화 기반 구축, 우수인재 육성, 장병의 사기복지 향상, 국민권익보호 관련 사업의 조기 완료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주요 경상운영 사업계획으로 현존전투력 유지 관리

비는 국방비 압박으로 실소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왔으나, 사용실적을 고려하여 교육용 탄약 및 장비운영 연료 등의 필수소요를 현실화 반영하였다.

국방 정보화는 대상기간중 행정용PC, 근거리 전산망, 정보 보호체계 등 기반체계의 구축을 완료하여 국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화 훈련은 장차전의 양상을 고려하여 '04년부터 인제 홍천훈련장에서 대대급 실병기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력 양성/교육환경 개선은 미래 안보환경의 다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전문/기술요원 양성 및 간부 자질 향상 교육을 확대하고, 사관학교를 비롯한 군 교육기관의 시설 확충 및 실험실습장비 현대화 등을 지원 하도록 계획하였다.

장병 사기복지 대책은 군 복무의 특수성에 상응한 사기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의 신설, 노후 협소한 군 숙소개선, 구형통합막사 개수, 취사식당 목욕탕 화장실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

국민 권익보호 관련사업은 오 폐수 처리시설, 소음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은 '05년까지 완료하고, 군 사용 사유지 정리 및 탄약고/사격장 주변 민가이전 등 민간부문의 숙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대군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06년도 우리 군의 모습

목표년도 2006년에 달성 가능한 우리의 국방력 수준은 광범위한 전장감시 능력 및 조기경보 전력, 실시간 통합전투력 발휘 가능한 자동화 지휘통제체계, 종심 전투 및 입체고속기동작전 수행능력, 원해 입체 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한 기반전력, 중, 고고도 방공작전 능력 등을 구비함으로써, 미래의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예 강군으로 변모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화 기반체계 구축, 실전적 과학화훈련 실시,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장병 사기복지 수준의 향상 등을 통해, 군의 전력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설명회 개최

획득 관리 및 개발단계별 S/W 관리방안 제시

방위산업체와 일반 군수업체에 근무하는 연구개발 및 실무요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군수품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설명회가 지난 7월 13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국방품질관리소가 주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방진회와 방위산업체 및 일반 군수업체 요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최근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각종 무기체계에 있어서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의 획득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무기체계의 획득정책과 연구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서, 내장되는 소프트웨어의 현실태를 분석하고, 사례발표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방위산업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획득 관리 및 개발단계별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

트웨어 관리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장비 배치 이후 성능개량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작성요령에 대한 심도있는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올해부터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관리가 가능하도록 국방부훈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방품질관리소와 방산업체는 해상이동위성통신시스템 등 주요장비의 소프트웨어 규격을 제정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통해 신뢰성있는 소프트웨어 획득 및 운용 유지비용의 절감과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 증대로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大, 무인항공기 설계강좌 개설

록히드 마틴社의 아맨드 채풋 박사 초빙

세종-록히드마틴 우주항공연구소는 오는 가을학기에 록히드마틴의 무인항공기(UAV : Uninhabited Aerial Vehicle) 분야 전문가인 아맨드 채풋 박사(Dr. Armand J. Chaput)를 초빙, '무인항공기 설계과정' 과목을 개설한다.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채풋박사는 록히드 마틴에서 수십 년간 무인항공기 및 무인전투항공기(UCAV) 설계와 개발에 힘써온 무인항공기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이번 강의는 세종大 재학생 뿐만 아니라 관련 산·학·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인들로 수강할 수 있어 '무인항공기설계' 분야의 기본이론과 실무경험을 국내 학·연·산 기관에 전달, 국내 우주항공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강좌는 세종 사이버대학과 협조하여 강의실에서 시행되는 실시간 강의 외에 사이버 강좌를 병행 제공할 예정이어서 외부 수강생의 효과적인 원격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외부수강생에게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강생 전원에게는 사이버강좌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Password를 부여하고, 외부수강생의 경우 세종大를 방문 수강 또는 사이버 강좌수강 모두가 가능하다.

채풋 박사는 "한국에서 무인항공기 설계강의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강의를 통해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대학교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록히드마틴은 99년 7월 세종-록히드마틴 우주항공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세종대학교 기계항공우주공학부에 재학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세종-록히드마틴 무선조종항공기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항공관련 설비 및 기자재 지원, 석·박사 과정 학생 및 교수의 해외연수 지원, 국제 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의 교육 협력사업을 세종大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美 메릴랜드주 베세스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록히드마틴은 첨단 기술의 시스템, 제품 및 서비스의 통합을 위한 연구, 설계,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핵심 사업 부문은 시스템 통합, 우주, 항공 및 기술서비스 분야이다.